

내고장 일꾼



허석 순천시장은 6일 오후 4시부터 관내에 거주하는 폭염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6일 오전 8시 30분 시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8월중 확대 간부회의에 참석해 시정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최형희 구례부군수는 6일 오전 9시 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열리는 8월 중 도·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에 참석한다.

폭염 장기화, 여수 수돗물 절약 당부

여수시는 최근 폭염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생활 속 수돗물 절약을 재차 당부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최근 35도를 넘나드는 폭염과 열대야로 가정과 관광·숙박시설의 물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었다.

특히 올해는 평년에 비해 장마가 일찍 끝난 데다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일부 고지대에 급수불량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달부터 시민들에게 수돗물 절약 동참을 당부했다.

가정에서 물 사용을 줄이는 방법은 설거지·샤워 시 물 받아서 쓰기, 양치컵 사용하기, 빨래 모아서 하기 등이다.

시는 또 물 사용량이 많은 공동주택의 경우 심야시간을 이용해 지하저수조 등에 물을 받도록 당부했다. /여수=곽재영 기자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 본사 010-4601-5323
- 여수 010-8648-1236
- 광양 010-3622-9898
- 순천 010-2547-7890
- 구례 010-5431-4006
- 곡성 010-6764-6100
- 고흥 010-9151-2828
- 보성 010-4633-1790

‘경기 침체’ 광양 소상공인 살리기 나선다

지역내 9,500여 업체...전체 사업체 84% 차지
금융지원·경영혁신·지역 화폐 확대 등 투자

광양시가 장기간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5일 시에 따르면 현재 광양지역 내 소상공인은 9,500여 업체에 종업원 수 1만1,000명으로 전체 사업체의 8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최저임금 상승 등 약세가 겹치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정부의 카드수수료 제로화와 금융지원 정책 등 소상공인 지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경영혁신, 지역화

폐 확대를 위한 사업 등에 과감하게 투자한다.

시는 올 연말까지 260개 업체를 대상으로 72억 원 용자추천과 이자 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용 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선사인특례보증’을 통해 내년부터 최대 3,000만원 용자와 연 1%대의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카드 수수료 부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역화폐 확대를 통한 가계 활성화를 주도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문재인 정부 들어 2020년 도입키로 한 일명 ‘제로페이’를 내년부터



광양시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 3월 전남산남용보증재단과 자영업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모습.

본격 시행할 목표로 ‘광양페이’ 추진을 위한 플랫폼 사업 선정 등 시스템을 구축해 착수했다.

‘제로페이’는 휴대폰을 통해 가맹점내 QR코드를 촬영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이체되는 방식

으로 소상공인들이 부담해 왔던 1~2%의 카드 수수료를 0%대로 낮추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경영여로 해소와 성공적인 마케팅을 통한 매출증대를 위해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6

월부터 경영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경영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이후 사업 성과측정을 거쳐 사업비를 대폭 확대해 나가 골목상권의 실질적인 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소상공인의 시설개선을 위해 리모델링비를 내년부터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점포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개 업체를 선정해 업체당 3백만원 한도 내에서 인테리어, 화장실개선, 진열장 개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현복광양시장은 “최저임금과 물가불안 등의 여러 약세가 겹쳐 시에서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며 “지역실질경제를 살려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기를 펴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가겠다.”라고 밝혔다. /광양=정경화 기자



광주대학교 축구 선수들이 구례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다. 최근 구례에는 선수단 등 1,000명이 찾았다.

구례, 하계 전지훈련지 ‘주목’

축구·태권도·철인 3종 등 선수 1,000명 이상 방문

지리산 자락에 자리 잡은 구례군이 이 실내체육관에서 전지훈련을 실시 운동선수 전지훈련지로 주목받고 있다.

구례군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달 말까지 관내일원에서 축구와 태권도, 철인 3종 등 1,000명 이상의 선수들이 구례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한다.

구례군은 다양한 운동기구가 갖춰진 웨이트트레이닝 센터 등 스포츠 기반시설이 완비돼 전지훈련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번 하계 전지훈련 첫 스타트로 태권도 국가대표 후보 선수 등 150여 명

이 실내체육관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했다. 또 유명 프로 축구선수 등을 배출한 광주대학교팀을 비롯한 11개 팀 400여 명의 축구선수들이 더위도 잊은 채 훈련으로 땀방울을 흘리고 있다.

이와 함께 여자씨름의 발상지인 구례는 씨름선수들에게도 훈련장으로 인기가 좋아 매년 실업팀 등 14개 팀이 공설 전천후씨름장을 찾아와 구슬땀을 흘리고 있으며, 철인 3종 청소년 국가대표 등 9개 팀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20일간 훈련 중이다.

매년 동·하계 때 구례를 방문해 전지훈련을 실시하는 육상 전지훈련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등 5개 팀이 공설 운동장 등에서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향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종목별 하계 노고단배 스토브리그 대회를 개최해 스포츠메카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지훈련팀과 전국 스포츠대회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구례=김진석 기자

여수 엠블호텔, 와인 바자회 개최

프리미엄 와인 50종 최대 70% 할인

와인갈라디너 등 지역의 와인 문화를 선도하는 엠블호텔 여수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양한 와인을 만날 수 있는 와인 바자회를 개최한다.

와인바자회는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총 4일간 엠블호텔 로비에서 진행된다.

이날 판매되는 와인은 스페인, 이탈리아, 칠레 등 대표적인 와인 산지의 와인으로 총 50종의 프리미엄 와인을 최

대 7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1만원대부터 판매되는 이번 행사는 와인 초보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으며 저렴한 비용으로 세계 각국의 와인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구입한 와인은 엠블호텔 여수 레스토랑 이용 시 와인 코르크지 서비스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여수=곽재영 기자



KEB 하나은행 호남영업그룹은 최근 보성군을 방문해 관내 저소득 다문화가정을 위해 250만원 상당의 행복상자를 전달했다.

KEB 하나은행, 보성에 행복상자 기탁

KEB 하나은행 호남영업그룹은 최근 보성군을 방문해 관내 저소득 다문화가정을 위해 250만원 상당의 행복상자를 전달했다.

행복상자는 세제·비누·라면·화장지 등 생활필수품이 들어있으며 기탁 물품은 관내 저소득 다문화가정을 위해 전달 될 예정이다.

정민식 호남영업그룹대표는 “지역민 함께 성장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공헌할 수 있는 KEB하나은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KEB하나은행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다문화가정에 뜻깊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보성=선상희 기자

클릭! 고흥 소식



여수새마을부녀회 환경안내소 운영

여수시새마을부녀회는 최근 웅천진수공원에서 여름철 피서객들을 위한 새마을환경안내소를 개소하고 피서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건전한 피서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에 나섰다.

환경안내소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깨끗하고 쾌적한 피서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새마을지도자들이 매일 무료 음료봉사와 피서지 주변의 환경 정화활동과 관광안내·계도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여수=곽재영 기자



광양 초·중학생 건강·공예 테마교실

광양시 광양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아 지역아동센터 초·중학생 30명을 대상으로 건강·공예 테마교실을 운영한다.

민·관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건강교육을 통한 정서적 지지를 형성하고 성취감과 자신감을 갖도록 하고자 추진됐다. 프로그램은 비영리단체인 다눔과 연계해 총 4회에 걸쳐오는 21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보건교육실에서 진행된다. /광양=정경화 기자



고흥 산모도우미 양성교육

고흥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최근 결혼이민자 20명을 대상으로 결혼이주여성 산모도우미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결혼이주여성 산모도우미 양성교육은 전남복지재단에서 출산장려지원사업을 공모해 선정된 사업으로 경제적 자립 능력을 높여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문화차이와 육아에 대한 정보부족을 겪고 있는 이주여성에게 국가별도 자국출신 산모도우미를 파견하고 있다. /고흥=진준근 기자



곡성골프협회 이웃돕기 성금 기탁

곡성골프협회는 최근 광주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제4회 곡성인 한마음 골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념해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모금액 200만원을 군에 기탁했다.

조월성 회장은 “이번 기부금 전달은 곡성인 한마음 골프대회를 통해 향우들 상호간 우정과 결속을 다짐고 동시에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고흥 주민들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추진됐다”고 말했다. /곡성=한정길 기자